

들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 휴식의 즐거움은 피로로 살 수 있고, 먹는 즐거움은 배고픔으로, 마시는 즐거움은 목마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네도 경험하지 않았나? 암, 그렇고말고! 사랑한다는 기쁨과 사랑받는다는 기쁨이란 술한 박탈감과 희생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 부는 그들이 가진 욕구를 미리 충족시킴으로써 그러한 기쁨을 모두 앗아간다네. 포만감에 따라오는 권태에다가 호사스러움에서 태어난 오만을 더해보게. 그것은 지극히 거대한 향락조차도 더는 즐겁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아주 사소한 박탈감으로도 상처 입는 그런 오만일세. 천 송이 장미의 향기는 잠깐 입에 맞겠지만, 가시 하나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찢린 뒤에도 오래 지속되는 법이지. 가지가지 기쁨 한가운데 있는 고통이란 부자들에게 있어 꽃 더미 속에 있는 가시와 다름없다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있어, 가지가지 고통 한가운데 있는 기쁨은 가시밭 한가운데 있는 꽃 한 송이와 같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생생하게 만끽한다네. 무엇이든 대비에 따라 효과가 더 커지는 게야. 자연은 만물의 균형을 이뤄두었네. 그래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자네 생각엔 어떤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인가. 희망할 것이라곤 거의 없고 온통 걱정할 거리로 넘치는 나라인가, 아니면 걱정거리라곤 거의 없고 온통 희망할 것으로 가득한 나라인가? 첫 번째 나라는 부자들이 사는 나라이고, 두 번째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